OND1) 북성로 장소성 인식요인 인과구조분석

한재경·박세경
대구가톨릭대학교 환경·조경학과

1. 서론

대구광역시 중구의 북성로는 과거 대구읍성이 있던 자리였으나 1906년에 읍성이 파괴되고 일본인 거류지가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거류지로 가장 번화한 거리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빈 건물에 공구상점이 밀집하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1990년대 경기침체로 공구거리가 쇠락하게 되었다. 현재 북성로는 대구광역시의 근대역사의 이야기를 품은 특성화된 골목으로 그 일대에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Jeo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북성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소가 갖고 있는 특성을 도출하고 방문객의 장소성 인식의 인과구조를 분석하여 도시재생계획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한다.

2. 자료 및 방법

북성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2019년 5월 20일부터 5월 25일까지 총 6일간 진행하였다. 총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99부를 분석하였다. 측정문항은 총 14문항으로 만족도 4문항, 장소애착 4문항, 장소기능 3문항, 행동의도 3문항이다. 자료 분석은 PC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에 사용한 지표는 CFI, RMSEA이며 CFI는 0.90이상, RMSEA는 0.05 이하일 때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랩 10,000회를 하였으며,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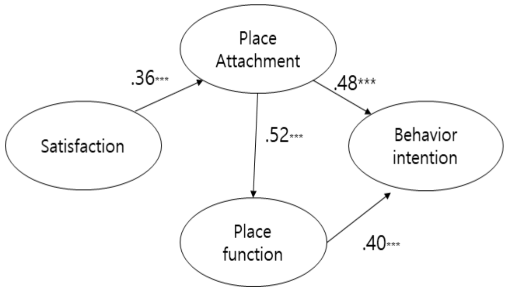

Fig. 1. Standardize estimates for final model.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 장소애착, 장소기능이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만족도는 장소애착과 장소기능을 매개로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하고 이중매개모형을 제안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장소애착(β=.355, p<.001), 장소애착→행동의도(β=.477, p<.001) 장소기능→행동의도(β=.40, p<0.01), 장소애착→장소기능(β=.524,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부트스트랩을 실시한 결과,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경로는 만족도→장소애착→장소기능→행동의도와 만족도→장소애착→행동의도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북성로 방문객에게는 장소애착의 영향이 만족도나 장소기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환경의 만족도가 장소의 재방문 등의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성로는 역사성과 지역민의 애착의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근대적인 경관을 유지하는 방향의 도시재생계획이 필요하다.

4. 참고문헌

Jeong, B. I., Kim, J. Y., Baek, Y. H., 2011, A study on the road system of bukseong-ro eupseongnae, Daegu built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 Kor. Hous. Ass., 22, 85-93.